

■ 1부 오전 9시
■ 2부 오전 11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4:24)

인도: 전종남 목사

*송 영 / 찬 양 대

*영 광 송 / 1장

*성서교독 / 10. 시편 16편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혼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신앙고백 / 사도신경

찬 송 / 347장

대표기도 / (1부) 전갑영 집사 (2부) 김승규 장로

헌금봉헌 / 51장 (1절)

성경봉독 / 사도행전 13:1~3

찬 양 / (2부) 시온찬양대

말 씬 / **“주님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 전종남 목사

(For the work to which the Lord has called them.)

찬 송 / 321장

교회소식 / 인도자

*파송노래 / 620장 (1절)

*축 도 / 전종남 목사

*표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전도대 출범예배>

■ 오후 3시 30분

지난 주일 (3/3) 오전예배 설교 요약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100:2)

인도: 선교위원장 김승규 장로

찬 송 / 495장, 496장

기 도 / 전도대 부장 유경순 권사

성경봉독 / 마태복음 28:19-20 전도대 회계 김영덕B 집사 찬 양 / 호산나 찬양대

말 씬 / **“예수님의 지상명령”** / 전종남 목사

(The Great Commission of Jesus)

특 송 / 수요전도대 및 주일전도대 일동 사역 보고 / 전도대 총무 우말순 권사

■ 저녁 7시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합2:20)

인도: 정인종 목사

찬 송 / 288장, 310장

성경봉독 / 고린도전서 13:1~13

말 씬 / **“사랑은 공동체를 세운다.”** / 정인종 목사

■ 주일~금 새벽 5시

■ 저녁 8시 40분

민수기 강해 / 전종남 목사

인도 / 정인종 목사

다음 주간 기도

예배 위원

주일 1부	주일 2부	주일 오후
김춘자 권사	윤성태 장로	김연주 권사

3월 1부	2부
안내 문미경 양낙석 우말순 전복희	
헌금 김신영 최영종 김정순 전숙희 최인숙	

헌금자 명단 (온라인 헌금 농협 301-0134-5884-21 강서제일교회)

십일조	김명순 김복례 김형문(신승희) 노상현(이정숙) 배복수 연윤희 오진솔 유남순 유예원 윤성태(강현주) 윤주연 윤주혜 이상혁(송미숙) 임진수(정해순) 정충호(윤태향)		
감사헌금	전종남(최경애) 김복례 김순천(연윤희) 김영덕A(이영희) 김영화 김춘예 노상현(이정숙) 박삼강자(가정) 엄상희 유남순 윤성태(강현주) 윤진태(이기숙) 윤태오(김현아) 이상유 이상혁(송미숙) 이옥미 이윤희 임진수(정해순) 전준형(전소원) 정규식(이석란) 정충호(윤태향) 정충호(윤태향) 조화훈(정근영) 최원용 한지연 *작정헌금: 송미숙 *자녀소원: 김성학(류윤영) 조예림 *월삭: 연윤희		
교육헌금	김순천(연윤희) 배복수 신춘봉(박영미) 우말순 윤성태(강현주) 이대기(박선진)		
주일헌금	한지연 무명	구역헌금	유치 유초 중고
선교헌금	청년부 김복례 김순천(연윤희) 김호열(도형) 박삼강자(가정)		

헤롯의 죽음과 하나님의 개입 (행12:18~25)

담임 전 종 남 목사

헤롯 아그립바 1세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의 권력과 권력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천하의 헤롯이 아주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23절은, “주의 사자가 치니, 그가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1.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개입하십니다(24절).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고 영적 지도자를 해치려고 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복음이 이방 세계로 왕성하게 전파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왕성하게 전파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요6:40). 그런데 헤롯이 교회와 영적 지도자를 핍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훼방하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를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수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2.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징계의 개입을 하십니다(22-23절).

오늘 본문은, 주후 44년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영국을 정복하고 승리의 개선을 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 곳곳에서 황제의 개선(凱旋)을 축하하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헤롯 왕도 가이사랴에서 축제를 엮니다. 그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고 은으로 만든 빛나는 옷을 입었습니다. 마침 햇빛에 옷이 반사되어 찬란한 빛을 발했습니다. 헤롯이 연설을 할 때, 군중들이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22절).

이럴 때,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응대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베드로도, 바울과 바나바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신으로 여기는 교만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어 치시는” 징계의 개입을 하셨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기록하기를, 헤롯은 심한 복통 가운데 5일 만에 죽었는데, 죽을 때에 몸이 썩어서 악취가 났고 배에서 벌레들이 생길 정도로 비참하게 죽었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겸손 합시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잠18:12). “그러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10:31).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요, 신앙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sola Deo gloria)”을 돌리는 참으로 겸손한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높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